



학사다이어리 - [공통]2014-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

일정 : 09.01(월) 10:30 ~ 09.05(금) 18:00  
비고 : 전체과목 수강신청 가능 / 서울-국제 캠퍼스간 교차수강 가능  
경희사이버대학 강좌는 수강취소만 가능  
(폐강된 강좌에 한하여 정정가능)

## 교수의회 비대위 출범 두달 만에 ‘삐걱’

동석호 의장, “규정 · 절차 무시 했다”  
이성근 위원장, “비대위 무력화가 문제”

교수의회 비대위 내용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교수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성근 위원장 선출 이후 채 두 주가 지나기도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교수의회 의장, 사무총장, 전체운영위원장, 의학지회 비대위 위원 등이 탈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수의회 동석호(의학) 의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명의로 발송한 이메일 서신을 통해 ▲비대위의 교수의회 회칙과 규정 및 절차 무시 ▲비대위원의 욕설과 협박 ▲비대위의 목적 변질 등을 거론하며 탈퇴사유를 밝혔다. 더불어 비대위를 ‘정치적 위원회’로 규정했다.

동 의장은 “비대위는 이미 본연의 목적을 잃었다”며 “교수의회의 민주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비대위의 행위는 일종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어서 동 의장은 “앞으로 비대위 체제의 성격과 행보는 차기 전체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대의원회의는 오는 15일 예정돼있다.

### 동 의장, “비대위 행위는 일종의 쿠데타”

폭언 · 협박 건은 비대위 내부 위원들 간의 전화 통화 상에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신문이 입수한 녹취 내용으로 볼 때 쉽게 봉합되기 힘든 부분들이 다수 존재해 앞으로의 해결방안이 궁금해지고 있다.

폭언 · 협박의 당사자로 지목된 A교수는 지난달 28일 교수의회 대의원앞으로 해명서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A교수는 “내 언행은 분

명 불미스러운 것이었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그런 문제가 불거진 과정의 책임은 B교수의 ‘회의록 조작’과 같은 잘못과 동석호 의장의 ‘월권’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이성근 위원장 역시 지난달 29일 메일로 전달된 입장문을 통해 동 의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별도보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장단과 임원이 참여한 비대위에서 의결한 점 ▲폭언 협박을 받았다는 B교수의 비대위 서신발송 방해 ▲동 의장의 정치적 비중립으로 인한 갈등확대 등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 ‘비대위 체제는 임시기구’ 이견 없어

비대위는 지난 6월 교수의회 전체대의원회의를 통해 의장과 지회장, 평교수대표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책임강의시수, 연구지원제도, 총장선출제 등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비대위는 지난 7월에 재정확충방안과 학생지원 감축 및 대학특성화사업, 교원 지원제도, 책임시수 등을 대학본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대학본부가 내놓은 답변이 ‘부실하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이후 지난달 12일 비대위 제4차 회의를 통해 이성근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다만 이런 비대위의 활동을 두고, 시각차가 발생하는 근저에는 비대위의 ‘성격’이나 ‘역할’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즉 비대위를 교수의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볼 것인지,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책임기구’로 인정해야 하는지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는 비대위가 처음 구성

- 비대위, 교수의회 회칙과 규정 · 절차 무시
  - A교수, 교수의회 임원에게 욕설 · 협박
  - 비대위 변질 ‘정치적’ 위원회 참여불가
- 8월 28일 교수의회 동석호 의장 입장문

- 동 의장의 임의탈퇴 · 직권남용, ‘탄핵사유’
  - 불미스런 언행 인정... 배경에 B교수의 ‘회의록 날조, 서신발송 방해’
  - 교수사회 정상화 위한 철저한 조사 필요
- 8월 28일 A 교수

- 위원회 관한 비대위에서 의결한 바 있음
  - 동 의장의 녹취록 발송은 실정법 위반
  - 동 의장, 비대위 무력화 시도가 ‘정치적’
- 8월 29일 교수의회 비대위 이성근 위원장 반박문

되는 과정에서 ‘역할과 목적’ 중심으로 결정하고, 이밖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비대위의 권한에 대한 입장차는 존재하지만, 비대위 체제가 임시기구인 점에는 이견이 없다. 비대위가 구성 목적을 달성하면 해체해 기존의 교수의회 체제로 운영될 계획이다. 따라서 비대위 체제의 ‘적합한’ 운영의 필요성은 현재 논란에 서있는 이들 모두 강조하는 바다.

### 교수연대, 출범 9개월 만에 ‘발전적 해체’

이 위원장은 “위기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 교수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며 “법인과 대학도 왜 교수들이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했는지 심사숙고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처음으로 비대위 체제가 출범하다보니 기대가 큰데 비해 이전의 사례가 없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하고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대위 논란이 불거지기 전, 약 9개월 동안 활동한 교수연대가 지난달 25일 교수연대 9호 통신을 통해 ‘발전적 해체 결정’을 밝혔다. 교수연대 최상진(국어국문학) 공동대표는 “교수의회 비대위의 설립목적과 교수연대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지 않아, 비공식기구인 교수연대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 Newsmaker

첫 학생개방이사 후보  
박지하(교육대학원 2014) 양

### “학생의견 경청하는 이사 필요해”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학생개방이사 후보로 박지하(교육대학원 2014) 양이 선발됐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박 후보를 지난달 26일 만났다. 우 리신문과 만나기 전, 여러 언론이 양 캠퍼스 학부 · 대학원 총학생회(총학)가 진행한 ‘학생개방이사’ 선발을 다뤘다. 대체로 최종선발 가능성에는 회의적이였다. 박 후보는 개방이사 선임과 정에서 이제 한 계단을 올랐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 투표, 교육부 자격심사 등이 남았다. 하지만 박 후보의 표정은 밝았다. ‘학생개방이사’ 선출과정에서 구성원의 ‘관심’을 느낀 덕이었다.

“지난해에 이사회가 하루 빨리 개방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할 당시, 학생들의 무관심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 선출과정에 3명의 후보가 지원했고, 서울캠퍼스 ‘학부중심’이 아니라 양 캠퍼스 학부와 대학원 모두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사회는 중요한 기구다. 교원의 임면부터,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학생에게 이사회는 ‘먼’ 조 직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박 후보는 동의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학생개방이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이사회가 ‘이렇게 많은 것을 결정한다’라는 자체를 모른다. 앞으로 학생개방이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도 이사회의 논의 내용이나 결정을 학생과 공유하는 것이다.

박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이

사회에 학생의견 직접전달’과 ‘이사회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뤄져있다. 이를 위해 학생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민주적 이사회를 위한 발전토론회’, ‘이사(후보) 검증단’, ‘민주적 이사회를 위한 연구 모임’ 등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등록금정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도, 결국 학교 전반의 재정위기 등 때문에 변하는 것이 없는 상황을 봤다. SPACE21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학생대상 설명회나 간담회도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해나갈 초석이 다질 수 있다.

이를 지켜보며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때문에 학생의 의견을 잘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이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학생개방이사사의 선발 여부를 떠나서 이번 일을 양 캠퍼스 학부 · 대학원 총학이 함께 진행한 점도 박 후보는 높게 평가했다. “각각의 대표하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달랐던 만큼 같은 학교 안에서도 협력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해나갈 초석을 다질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학생개방이사 사업은 ‘성과’가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는 “물론 개방이사로 선발되는 게 좋겠다”며 바람을 덧붙였다.

## “횡단하고 탈주하라!”, 《자기만의 방》

### 휴머니티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교전의 사계 ⑦

김은하 휴머니티스 칼리지 교수

오늘날 ‘방’은 ‘고립’ 혹은 ‘실재’로 여겨진다. 사회적 적응에 실패한 히키코모리, 욕답에 갇혀 좀체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삼포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도 없고 친구도 없이 찬밥처럼 빈 방에 담겨 있다. 그것은 방이 아니라 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

을 흉내내며 전력을 다해 방으로부터 도주한다. 그러나 버지니아 울프(1882-1941)는 사방이 틀어



《자기만의 방》은 울프가 ‘여성성과 픽션’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보완해 묶은 에세이다.

막힌 자기만의 방을 갖기를 열망한다. 그 방은 비참함을 뜻하는 고립이 아니라 본래의 자기로 돌아가기 위한 창조적 고독, 사색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다.

《자기만의 방》은 울프가 ‘여성성과 픽션’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묶은 에세이다. 작가는 가상의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 여성 문학의 성취와 한계를 묻는다. 그런데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여성의 ‘방’ 없음부터 이야기하자고 제안한다.

오랫동안 여성은 한 사회나 가

족의 경제 수준과 무관하게 가난에 시달렸다. 또한 성차별적 제도와 이데올로기로 인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특히 글쓰기는 여성성을 잃게 할 악덕으로 간주되어 개인성이 허용된 공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방은 제도화된 여성의 굴레를 넘어서 한 사람의 여성을 작가, 지식인으로 탄생시키는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대한 은유이다.

▶ 7면으로 이어짐

### 알림

#### 사령

면	〈정기자〉 백승철(정치외교학 2011) 이민교(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4) 이승연(스페인어학 2014) 이재은(경영학 2014) 이진우(태권도학 2013) 최승욱(전자전파공학 2014) 황경선(철학 2014)    이상 9월 1일부
명	〈편집장〉 권오은(언론정보학 2009) 〈보도팀장〉 김윤철(국제학 2010) 〈여론팀장〉 정용재(경영학 2010)

### 대학주보 63기 수습기자 모집

모집대상 : 1, 2학년

모집일정 : 9월 1일(월) ~ 12일(금)

접수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

특전 : 유명인 취재, 장학금 등



시선

사설

교수사회 논란 넘어 ‘존경’을 회복하길

방학동안 조용했던 캠퍼스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교수사회가 이 소음의 중심에 있다. 각 단과대학에서 제기되는 성희롱 문제에서부터 임시비리, 논문표절과 대필사건, 산학협력 사업에서의 사건 등은 ‘진실’ 여부나 ‘사법부의 판단결과’를 따지기 전에, 문제가 제기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끄럽다.

그뿐이 아니다. 대학의 현안을 걱정하고 건강한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구성된 교수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일부 교수의 상상하기 힘든 ‘폭언’과 ‘협박’은 교수사회에 또다른 논란거리를 던져주었다. 그 전후사정에 대한 각자의 입장은 나름의 논리가 있지만, 교수사회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도 분명하다.

‘교수연대’나 ‘비대위’ 등 모처럼 용기를 낸 교수들의 건강한 문제제기에 구성원이 걸었던 희망이 컸던 만큼 이번 비대위의 분열상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교수는 대학공동체에서 하나의 구성원이기 전에 스승이다.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부문의 결정권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수는 소중한 가치를 옹호하지 못하고 지니고 있어야 할 ‘스승’이자 ‘은사’여야 할 존재다. 교수라는 직함에 따라붙는 사회적 명망과 권위는 온전히 이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사회가 그 ‘존경의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은 개탄스럽기까지 하다.

비대위 등장 배경인 재정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대학본부에 있는 만큼, 대학 역시 책임을 다할 때,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교수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교수자 신임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문제제기하는 교수는 소수다. 또한 교수연대와 비대위의 등장 배경인 재정문제의 일차적 책임은 대학본부에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 조치를 보여주지 않아, 교수사회 분열의 배경이 되고 있다. 결국 모든 교수와 대학본부가 이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내가 왜 그 일을 하나’며 남 탓하는 사회를 하강사회로, 스스로 나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는 사회를 상승사회로 정의했다. 교수사회가 ‘하강사회’의 나선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는 와중에 필요한 것은 ‘침묵의 나선’을 증폭시키는 냉소가 아니다. 교수사회가 스스로 오점을 고쳐나갈 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수사회와 나아가 대학까지 ‘자기반성’과 ‘책임’을 무겁게 질 때, 대학 전체를 상승사회로 발돋움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가슴으로 기억나는 스승님이 없다고 말하는 학생과 내 인생을 바꿔준 은사님이 없다고 한숨 짓는 청년이 살아가는 캠퍼스의 현실 속에서, 부디 ‘스승’들의 울골은 목소리를 기대한다. 정녕, 이것이 그리 무리하고 커다란 바람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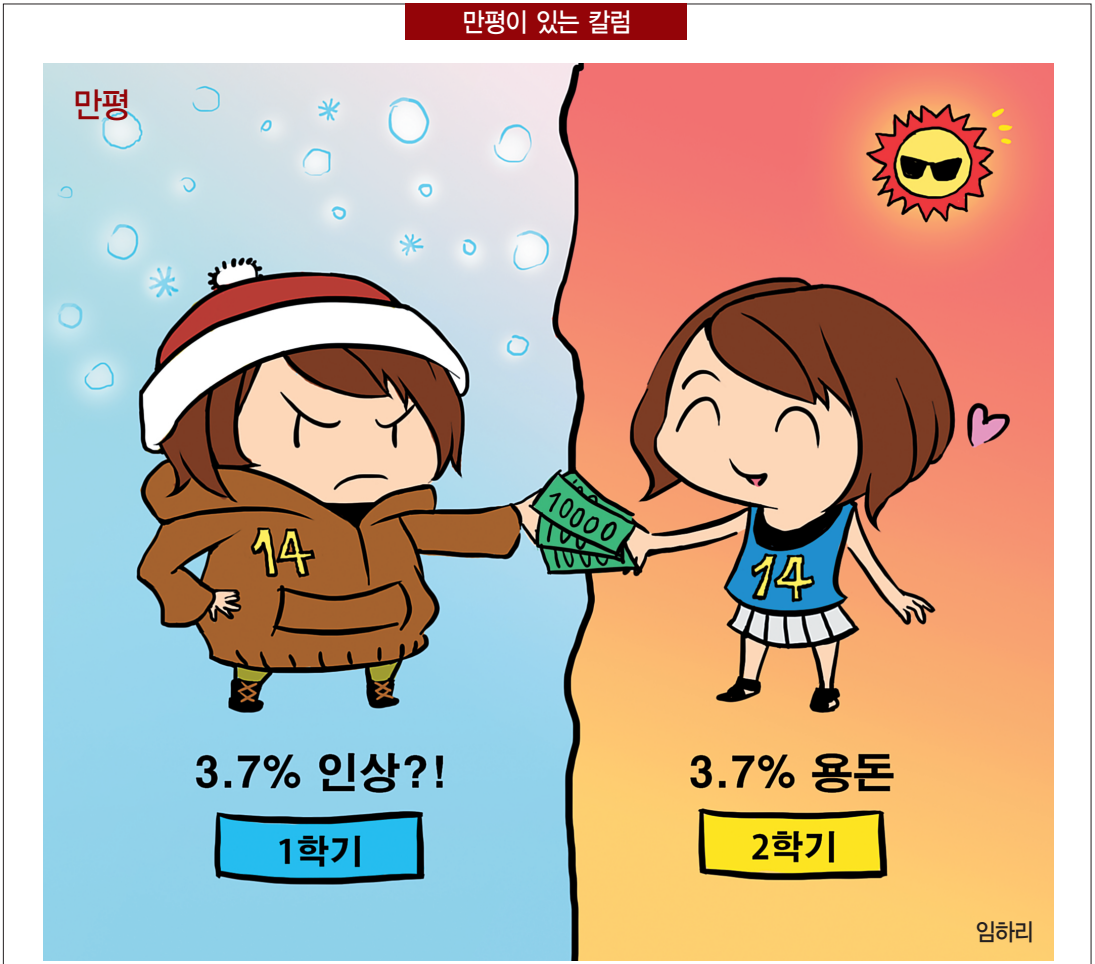
‘주거안정 vs 생존보장’... 경희대에서 무슨 일이?

미디어여론동향 | 2014. 8. 25 ~ 31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온라인 커뮤니티 쿠파라자에는 ‘추석귀향버스 소요 시간’(2014.8.25)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귀향버스를 탈 예정인데, 국제캠퍼스에서 출발해 경성권에 도착하기까지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는 글이다. 댓글로 ‘귀향버스 짐수는 언제냐’는 질문이 달렸고, ‘8월 25일부터 9월3일 12~18시까지 학생회관 303호 총학생회실’이라는 답변이 올라왔다. 또한 ‘경성권도 거리에 따라 다른데 대구는 3.5시간 부산은 빠르면 5시간’이라는 내용과 ‘나는 저번에 대구까지 6시간



이주의 주제 - 2014학년도 신·편입생 등록금 납부 차액 환불

참을 수 없는 ‘등록금 고지서’의 가벼움



황경선  
(기자)

대학주보가 방학 중에 보도한 ‘2014-1 신·편입생 등록금 납부 차액 환불’ 기사에 많은 신입생의 관심이 쏠렸다. 일부 학생은, 환불받는 돈을 ‘공돈’ 혹은 ‘용돈’이라 생각하며 좋아했다. 한 학기가 지나서야 10만 원 내외의 등록금 차액을 돌려받는 일이 과연 즐거운 일일까. 기자이기 전에 2014학년도 신입생의 입장에서, 찜찜함이 남는다.

신·편입생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환불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12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2.3% 인하분을 그 해 2학기 고지서에서 차감한 선례가 있다. 2011학년도 역시 3% 인상분을 개인 계좌로 환급한 바 있다. 이는 우리학교 등록금 책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2014학년도 등록금 역시 당초 3.7% 인상안을 제시했던 대학본부가 입장을 철회하고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동결하는 과정에서 등책위의 논의가 길어져, 재학생보다 먼저 고지서를 받아야 하는 신입생에게는 3.7% 인상안으로 가고자 했다. 이후에도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등록금이 최종 확정된 것은 한 학기가 마무리된 7월 초였다. 다시 등록금 환불방식에 대한 논의에 한 달이 소요돼, 결국 2학기인 9월·11월 중순에서야 등록금 차액 환불이 이뤄질 계획이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등록금 책정관련 기구의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작이 늦다는 점이다. 등록금 책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본부와 학생대표, 혹은 다른 구성원대표는 ‘등록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이런 입장차를 두고 공돌여 논의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길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대학주보는 등록금 논의시기를 앞당길 것을 꾸준히 제안했으나, 학생대표의 선거일정과 대학본부의 회계일정 등을 이유로 올해 역시 늘 그랬듯 등록금 고지를 한 달도 채 안남은 시점에 논의를 시작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학교운영 계획의 부재로, 등록금 인상이나 동결, 인하가 대중없이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수입의 60%를 차지하는 등록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는 당장 환불이나 고지서 감면을 위해 상당한 행정비용을 낭비하게 만든다. 나아가 예산의 사용역시 단발적인 ‘사업’에 그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학교 구성원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등록금 고지서는 경솔하게 쓰고 지워 고칠 수 있는 가벼운 ‘종이’가 아니다. 교육여건부터 각 수업의 가치, 나아가 학생들에게 돌아올 지원사업 등을 고려한 결과여야 한다. 이런 결과물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앞선 논의와 장기적인 예산계획 설정이 절실하다. 대학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등록금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쌓지 못한다면, 반복되는 등록금 환불조치는 학생들의 불만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2014.8.26) 집주인들은 학생 1,000명이 기숙사로 가면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학교 측은 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희대 공공기숙사 신축 건은 지난달 주민들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했고, 경희대는 곧바로 동대문구청에 건축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주민과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구청에선 해당 문제를 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성용(생체의공학) 교수 연구팀이 무동력 혈액세포 분리장치인 ‘스마트 피펫탑’을 개발했다.(최성용 경희대 교수 ‘무동력’ 혈액세포 분리장치 개발/뉴시스, 2014.8.28) 스포이드 등으로 이 장치에 혈액을 넣으면 넓고 좁은 미세한 관들을 통과하며 혈액세포와 혈장이 분리된다. 기존에 혈장분리에 활용된 원심분리기는 가격이 비싸고 휴대가 어려웠지만 스마트 피펫탑은 저렴하며 휴대도 간편하다. 최교수는 “해당기술을 이용하면 일반인 누구나 의료진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혈액세포와 혈장을 분리할 수 있다”고 했다.

‘상하이 자오통대’ 평가 믿을만 한가요



세시봉

권은  
(편집장)

#1. ‘2014 상하이 자오통대 세계 대학평가’가 지난달 20일 발표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순위 372위, 78계단 순위 상승’이라는 내용이 담긴 대학본부 측의 메일이 도착했다. 발 빠른 행정에 ‘갑탄’하며, 취재에 나섰다. 관련 자료를 담당기자와 검토하면서 ‘순위 상승’과 ‘연구실적의 양적·질적 발전’이라는 말은 사실 ‘허황’된 수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2. 1위인 하버드대학을 100점 만점으로 기준 세위 상대점수를 부여했을 때, 우리학교는 13.9점이다. ‘자랑스러운 성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는 상하이 자오통대 세계 대학평가를 구성하는 ‘평가 지표’에서 기인한다. 이 평가에는 노벨상·필즈상을 수상한 동문 수(10%), 물리, 화학, 의학, 경제학 분야에서 노벨상·필즈상을 수상한 교수 수(20%)로 가중치가 부여돼있다. 평가부문 중 30%가 현재 우리학교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순위상승보다 ‘다른 대학’과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학교만의 정책으로 채워나갈지가 바람직한 고민

#3. 이런 와중에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관한 취업관련 평가가 발표됐다. ‘청년드림대학’을 찾는다는 이 평가는 취업상담, 정보제공, 직업체험, 교육과정 등을 근거로 대학의 취업역량을 평가했다.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우수·(그냥) 청년드림대학’으로 3분할했다. 최우수는 커녕 우수에서도 우리학교를 찾을 수 없었고, ‘다행스럽게도’ 198개 4년제 대학 중 49개 대학에는 꼽혀 ‘청년드림대학’에는 포함됐다. 동아일보는 기사를 통해 ‘청년드림대학’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우수한 대학이라고 추켜세웠으나, 교수와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 7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뒤에 마주하는 교육성과는 부족한 수준일 뿐이었다.

#4. 이 사회는 수많은 것을 평가해왔다. ‘대학평가’ 역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그것을 ‘아니 꼭게’ 바라볼 수 있지만, ‘평판’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무시하기도 어렵다. 핵심은 ‘대학평가 자체’가 아닌 그것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의 문제다. 몇 주 동안 보여준 우리학교의 모습은 적절한 소비와는 동떨어졌다. 지난 6월에 발표된 ‘2014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드러난 교육환경과 연구실적 분야에서의 격차가 ‘2달’ 만에 순위상승으로 포장될 수는 없다.

#5. 당장 대학구조개혁관련 정부의 대학평가가 다가온다. 대학평가 중 가장 오래된, 그래서 명성이 높은 중앙일보 대학평가결과도 금방이다. 이를 앞두고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진지해야 한다. 순위상승보다 ‘다른 대학’과의 차이를 ‘어떻게’ 우리학교만의 정책으로 채워나갈지가 바람직한 고민이라고 믿는다. 우리학교가 평가라는 ‘꽃’을 통해 대학의 뿌리를 반추해나가길 기대한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환 | 주간 김민천 | 편집장 권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경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교수연대가 남긴 ‘공론’, 여전히 ‘현재진행형’

## ‘재정적자 300억 불가피’ 설이 촉발 11월 21일 서울-국제 교수연대 발족 총 9차례 ‘통신’ 통해 대학에 대안요구 ‘비대위’에 바통 넘기며 해체 결정

### 교수연대 성과와 남은 과제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경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서울·국제캠퍼스 교수연대(교수연대)’가 지난달 25일 교수연대 통신 제9호를 통해 ‘교수연대의 발전적 해체 결정’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발족 후 약 9개월 만이다. 교수연대는 교수사회가 대학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며, 대학의 재정문제부터 SPACE21사업, 경희의료원 문제, 교육여건 등 다채로운 사안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공론장’으로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이런 교수연대의 등장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선, 지난해 5월까지 거슬러가야 한다. 당시 대학본부 편제개편과 함께 경희학원 전체 재정 및 수익사업을 총괄하던 Finance21사업단이 폐지됐고, 이후 ‘재정적자 300억 원 불가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학의 ‘재정위기’ 논란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후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적절함’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결국 지난해 11월 최상진(국어국문학) 교수를 대표로 하는 총 23명의 서울캠퍼스 교수들로 이루어진 ‘경희대학교 정상화 서울캠퍼스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이를 비판하며 성명서를 게시했다. 국제캠퍼스에서도 김한상(스페인어학) 교수를 대표로 교수 29명이 ‘경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국제캠퍼스 교수 모임’을 만들고, 재정위기에 대한 의견서를 배포했다. 이후 양 단체는 교수연대를 결성하고, 약 150여 명의 교수가 추가로 참여했다.

결성과 함께 교수연대는 9개월 동안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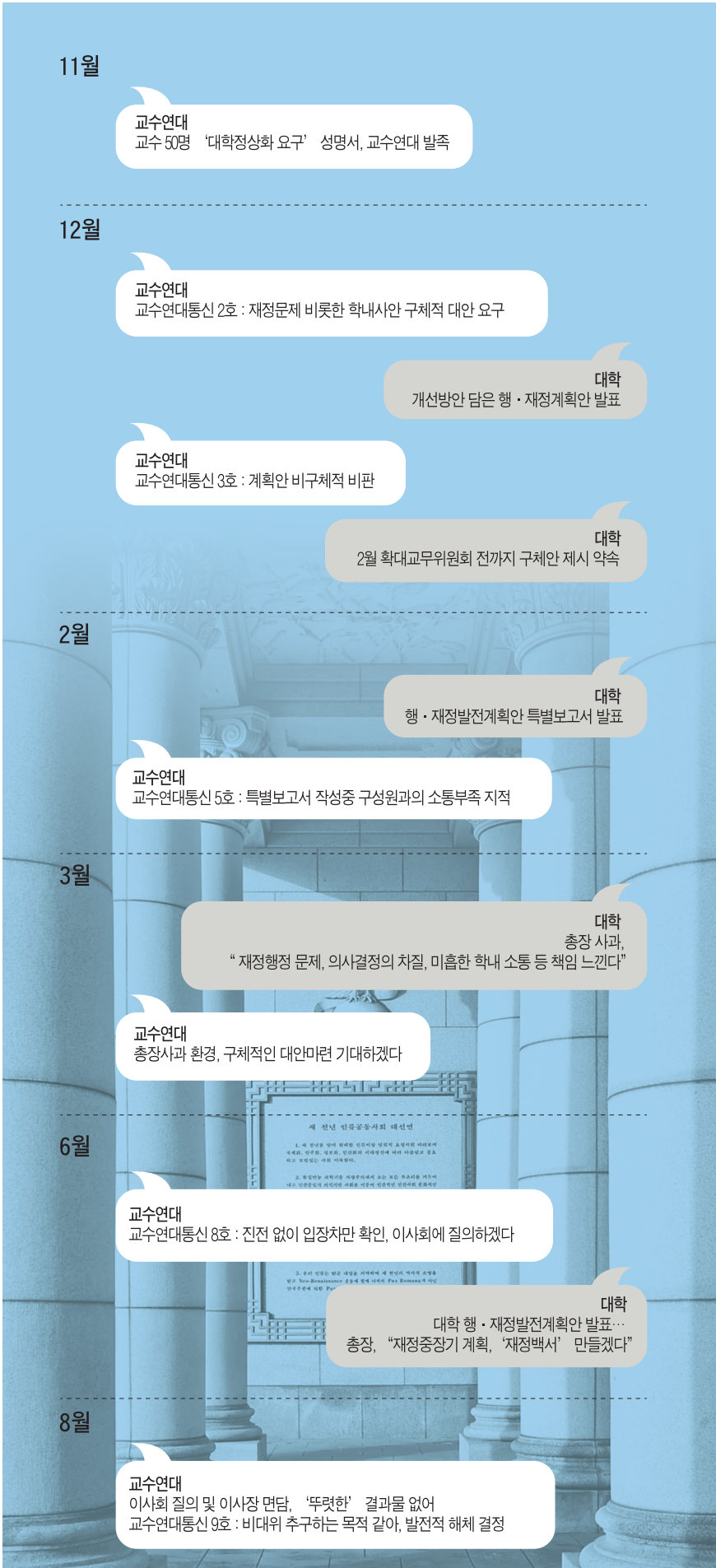
차례의 교수연대통신을 발송하고, 수차례 대학본부와 법인 이사회에 학내현안을 질의했다. 교수연대가 학교에 요구한 사항은 지난해 12월 구성원에게 보낸 교수연대 통신 제2호에 잘 드러난다. 이 서신에서 교수연대는 ▲이사회 정상화 ▲거버넌스 개편 ▲경희의료원 개선 및 투자증대 ▲교수임금 및 연구지원 강화 ▲교직원 의사전달 구조개선 ▲교육여건 개선 ▲무리한 SPACE21사업 중단 ▲비전임교원 및 계약직직원의 구조조정 피해 방지 등 총 8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 학내 여론에 큰 자극... 대학, 방안마련 위해 분주

교수연대의 질의내용은 곧 학내 여론에 큰 자극이 됐다. 결국 이사회는 지난 3월 이사선임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었고, 재정문제와 행정인력 문제 개선방안을 담은 ‘대학 행·재정발전계획안’이 나왔다. 지난 3월 조인원 총장은 서신을 통해 “총장으로서 그리고 법인 이사회 일원으로서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전체 구성원에게 밝히기도 했다.

이런 성과에 대해 교수연대 최상진 공동대표는 “문제제기에 그쳤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서 최 공동대표는 ‘비공식기구’인 교수연대가 지닌 한계를 이야기했다. 공식기구인 교수의회와 달리, 교수연대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고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수연대가 제기한 문제는 사실 대부분이 ‘현재진행형’인 상황이다. 특히 대학본부가 제시한 행·재정발전계획안을 통해 재정문제와 거버넌스를 효율화하는 방안은 교수연대가 우려했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 교육여건 부문에



교수연대의 출현은 우리학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그만큼 대학의 많은 구성원은 교수연대의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 봤다. 지난해 11월부터 교수연대와 대학본부가 재정문제를 중심으로, Space21·교육여건·연구지원·학내소통 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질의응답을 이어온 내용을 시기순으로 정리했다.

서 당장 대형 강의가 증가하게 됐고, 행정부문에서는 계약직 직원의 수를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교수의 연구부문에서도 여전히 책임시수, 연구비 지원계획 등을 두고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SPACE21사업 역시 서울캠퍼스는 일부 주민의 문제제기로, 국제캠퍼스는 설계안 수정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로 인해 1학기 중 착공에서 방중으로, 다시 2학기로 미뤄진 상태다.

### “교수연대, 애교심과 정의감 없는 힘들 일 했다”

따라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몫은 교수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에 넘어갔다. 교수연대가 해체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비대위’가 지향하는 바와 교수연대의 발족 목적이 일치한다는 점인 만큼, 지속적으로 비대위가 문제들을 논의하는 축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최 공동대표는 “비대위가 문제제기하는 재정확충방안과 학생정원 감축 및 대학 특성화사업, 교원 지원제도 등이 교수연대와 같다”며 “공식기구가 발족한 만큼 이곳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대위 이성근(관광학) 위원장은 “교수연대의 노력이 비대위 출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며 “대학 당국을 비판하는 일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다. 애교심과 정의감 없는 하기 힘든 일이다. 교수연대가 큰 기대를 표명하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지지만 만큼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 체제가 지난달 28일 교수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의료지회 등이 탈퇴하면서, 내용을 겪고 있는 만큼 교수연대가 제기했던 문제를 지속해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캠퍼스 리크루팅 일정

09 September 2014					
Mon	Tue	Wed	Thu	Fri	
1	2	3	4	5	
롯데그룹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롯데그룹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이랜드그룹 채용면담 13:00~15:00/ 오바스홀 111호	스튜디오에어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현대글로벌비즈 채용설명회 14:00~16:00/ 오바스홀 111호	KT그룹 채용면담 (KT, BC카드, SkyLife)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LG디스플레이 채용설명회 10:00~15:00/ 중도 시청각실	코오롱그룹 채용면담 (코오롱인더스트리, F&C 제조, 코오롱글로벌, 코오롱비티, 코오롱머스크)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8	9	10	11	12	
			GS칼텍스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인텔에프앤에이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현대라이프YG프 채용면담 13:00~16:00/ 정운관 상담실 한국에너지공사 채용설명회 16:00~18:00/ 오바스홀 111호	2014 아시아경제신문사 청년취업아카데미 모집 설명회 (글로벌 비즈니스 직무교육과정) 15:00~17:00/ 중도 시청각실	
15	16	17	18	19	
대우건설 채용면담 10:00~16:00/ 정운관 상담실	CJ 채용설명회 15:00~18:00/ 정운관 B117호	대한항공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대한항공 채용설명회 14:00~16:00/ 정운관 B117	한화그룹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일동제약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LS그룹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22	23	24	25	26	
IBK 기업은행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글로벌이노비스 채용면담 14:00~16:00/ 정운관 B117호	한국에너지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한국에너지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한국에너지 채용설명회 15:00~18:00/ 중도 시청각실	한국에너지 채용면담 10:00~17:00/ 정운관 상담실		

※ 자세한 내용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 02-961-016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설명회의 경우 출석 협조인이 필요한 경우 설명회가 끝난 후 설명회 장소에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별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 1:1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 상세 내용
- | 상담유형                | 컨설팅                             | 일시                        | 장소                                                    | 신청방법                         |
|---------------------|---------------------------------|---------------------------|-------------------------------------------------------|------------------------------|
| 개인상담                | 분야별 컨설턴트 4명                     | 월 ~ 금<br>(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 오바스홀 354호<br>~356호<br>제1법107-2호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
| 집단상담                | 이종구 교수<br>(취진처 연구실장)금운관, 대기업 상담 | 월 18:30~19:30             | 네오관 103호                                              | (컨설턴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
| On Line Off Line 상담 | 한상백 팀장<br>(취업지원팀)               | 상시                        | On Line<br>(hansb@khu.ac.kr)<br>Off Line<br>(취업진로지원처) |                              |
-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 2014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 취득 가능학점 (서울캠퍼스의 학생은 국제캠퍼스의 사회봉사 교과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상적부여 방식: P / F (2014년도부터 P(급제)/F(낙제)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2학점(단, 200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최대 3학점)
  -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 항목            | 2012~2학기 이전                                           | 2013~1학기부터                                                                                                                                                                                                                                                                                               |
|---------------|-------------------------------------------------------|----------------------------------------------------------------------------------------------------------------------------------------------------------------------------------------------------------------------------------------------------------------------------------------------------------|
| 사회봉사 1학점 취득요건 | - 경희관리인재대상 사회봉사 참여 이수<br>- 입학 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 후학에 관개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 인정기준          | 국공립기관 및 비영리단체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이 불가능<br>①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www.wms.or.kr) 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기관에서 봉사를 실시하고, 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br>② 교내 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 단,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과 사회봉사팀의 된 봉사활동만 인정<br>③ 한일중을 기증하는 경우 |
-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 | 구분      | 교과목 이수(학점인정신청)                                                   | 실적등록               |
|---------|------------------------------------------------------------------|--------------------|
| 대상      | 2014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수강신청 학생                                         |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
| 서류 제출기간 | 2014년11월17(월) ~ 2014년11월28(일)까지<br>'취'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제 서류를 받지 않음 | 1. 실적등록 신청서        |
| 제출서류    | 1. 학점인정신청서<br>3. 소감문                                             |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
- 제출서류양식→ http://service.khu.ac.kr/→정보마당→) 자료실
- 기타 세부사항
- 가. 봉사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  
나. 한월일자에 따른 인정 시간
- | 구분   | 2006, 228 이전 | 2006, 3.1~2011, 228 | 2011, 3.1 이후 |
|------|--------------|---------------------|--------------|
| 인정시간 | 15           | 8                   | 4            |
- 다. 한월중기중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한월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16시간까지 인정 가능

###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 대학생 · 교수 광화문까지 도보행진,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8 · 25 대행진 동행취재기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2 일째였던 지난달 25일,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8.25 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한 이들이었다. 우리 학교를 비롯해 서울대, 동국대 등 15개 대학 총학생회와 한국대학생연합이 참여한 ‘세월호 대학생 대표자 연석회의’가 주최한 이날 행진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서울캠) 정문과 서울대 정문에서 각각 출발해 광화문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진행됐다.

## “세월호 특별법,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필요”

행진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2시부터 정문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2시 30분부터는 대학생들과 교수, 일반시민부터 이들을 취재하기 위한 기자들로 북적었다. 참가자들은

‘수사권 · 기소권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등과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오른 손목에 노란 리본을 묶었다.

행진에 앞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총학생회 박이랑(사학 2008) 회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에 끌려 다니기에 급급하다”며 “이런 때 일수록 대학생이 움직여 세월호 유가족과 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알아야 한다”고 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정시간이 되자, 각자 현수막과 이동용 스피커를 점검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행진인원은 약 100여 명 정도였다.

그 중에는 한 외국인도 함께 했다. 우리 학교 존 에페제시(John Eperjesi, 영어학) 교수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과 학생들과 함께 하는 마음에서 참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서울대 정문에서도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없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세월호 참사가 흐지부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캠 정문부터 시작한 행진은 고려대학교를 지나 제기동과 신설동 그리고 동

묘양 동대문을 거쳐 종로 그리고 광화문까지 약 3시간 30분간 동안 계속되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는 약 8.9Km. 행진 내내 참가자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이 책임져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 행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더 많은 목소리 담겠다”

참가자들을 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행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닌 시민들은 폭언을 쏟기도 했다. 행진일행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한 택시기사는 차 밖으로 나와 “특별법은 무슨 얼어 죽을 특별법이야, 니들이나 잘해”라며 시위대를 향해 불쾌한 심기를 직접 드러냈다. 60대 남성은 행진 앞 열을 막아서며, “무슨 행진이나. 경찰들 뭐하나. 빨리 해산시켜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위 측과 경찰 모두 긴밀히 협조해 물리적 충돌과 같은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행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지닌 시민들도 상당했다. 정문을 출발할 때 100여 명이었던 참가자는, 신설동 부근에선 150여 명으로 늘었고 광화문에 도착했을 때는 200여 명이 됐다. 중간에 참여한 A씨는 “세월호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수사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반

드시 필요하다”며 “오히려 대학생들이 이런 일에 먼저 나서는 것을 보고 기성세대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마음으로 행진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종로를 지날 때는 음식점 주인이 냉수를 건네며, “고생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SNS상에서도 이번 행진에 대한 이견은 뚜렷했다. 특히 총학생회가 행진에 참가하면서, 별도의 전체 학생의견을 묻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이랑 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에게 의사를 물었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진행했다”라며 “하루 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바쁘게 진행했다. 때문에 소통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담아 내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개강 첫 주 1일부터, 수업반납’ 제안도 나와

행진인원은 오후 6시 40분, 세월호 유가족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광화문 광장의 유가족농성장에 도착했다. 농성장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로 크게 반겨주며 “너희들이 정말 장하다”, “여러분들이 있

어서 정말 큰 힘이 된다”고 외쳤다. 30분 후에 서울대에서 출발했던 행진인원들도 도착했다. 이들은 농성장에 들어가기 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기독교 모임이 각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집회 장소들 주변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됐다. 때문에 행진인원들은 이후 청와대로 행진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경찰병력에 의해 행진을 저지당했다. 1시간 가량 구호를 외치던 이들은, 오후 9시 50분쯤 자진 해산했다.

한편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 최초 제안자인 옹혜인(정치외교학 2009) 양은 ‘〈개강 첫 주, 수업을 반납하고 거리에서 만납시다.〉’라는 글을 통해 수업반납/거부 대자보 붙이기, 대학가 및 변화가/시내 캠페인, 지하철 캠페인 등을 제안했다. 옹 양은 “이런 시국에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개강 첫 주 수업을 반납하고 일주일 동안 거리에서 10만 명의 시민을 만나고 유가족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 할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4 하반기  
리크루팅 안내

채용설명회

\*일정이 변경되거나 회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회사별 모집요강은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career.khu.ac.kr>) 공지사항 참조

\*장소설명 : 피스홀-도서관3층 피스홀, 국경-국제경영대학관, 공대-공과대학관, 전정-전자정보대학관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2	3	4	5
	- 현대자동차	- LG디스플레이	- 현대중공업	
8	9	10	11	12
				- 포스코 그룹
15	16	17	18	19
- 현대엔지니어링 - 현대오트모빌	- 현대건설 - LS 그룹		- 두산그룹	- 대우건설
22	23	24	25	26
- 효성그룹 - NHN - 엔터테인먼트			- 한국타이어	
29	30			

9월

/채용설명회/

기업명	일시	장소
현대자동차	9/2(화) 16:00-18:00	도서관 3층 피스홀
LG 디스플레이	9/3(수) 14:00-16:00	도서관 3층 피스홀
현대중공업	9/4(목), 15:00-16:00	국경 시청각실(106호)
포스코	9/12(금), 14:00-16:00	도서관 3층 피스홀
현대오트모빌	9/15(월), 16:00-18:00	국경 시청각실(106호)
현대엔지니어링	9/15(월), 15:00-17:00	도서관 3층 르네상스홀
현대건설	9/16(화), 15:00-17:00	국경 시청각실(106호)
LS그룹	9/16(화), 16:00-18:00	도서관 3층 르네상스홀
두산그룹	9/18(목), 14:00-16:00	국경 시청각실(106호)
대우건설	9/19(금), 15:00-18:00	공대 107호
효성그룹	9/22(월), 16:00-18:00	도서관 3층 피스홀
NHN엔터테인먼트	9/22(월), 14:00-15:00	도서관 3층 피스홀
한국타이어	9/25(목), 16:00-18:00	도서관 3층 르네상스홀

2014 하반기  
리크루팅 안내

채용상담

\*일정이 변경되거나 회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회사별 모집요강은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career.khu.ac.kr>) 공지사항 참조

\*장소설명 : 피스홀-도서관3층 피스홀, 국경-국제경영대학관, 공대-공과대학관, 전정-전자정보대학관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2	3	4	5
			- 현대중공업 - 한라그룹 (만도, 안도, 팔라, 한라스터빌) - KTOS - 메그나힐랜드채 - 삼성전자 - 생활가전사업부	- 현대중공업
8	9	10	11	12
			- 코오롱그룹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 포스코 그룹
15	16	17	18	19
- 현대엔지니어링 - SK에이엠	- 현대건설 - LS 그룹	- 휴비스 - 삼성전자 DS파트	- 두산그룹 - OCI	- 대우건설
22	23	24	25	26
- 효성그룹 - NHN - 엔터테인먼트		- 한국타이어	- 한국타이어	
29	30			

9월

/채용상담/

일시	기업명	장소
9/4(목), 10:00-17:00	현대중공업, KTOS, 메그나힐랜드채, 한라그룹(만도, 안도, 팔라, 한라스터빌), 삼성전자(생활가전사업부)	도서관 1층 로비
9/5(금), 10:00-17:00	현대중공업, 한국 NSK	도서관 1층 로비
9/11(목), 10:00-17:00	코오롱그룹(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도서관 1층 로비
9/12(금), 10:00-17:00	포스코그룹	도서관 1층 로비
9/15(월), 10:00-17:00	현대엔지니어링 SK에이엠	도서관 1층 로비 생명과학관 115호
9/16(화), 10:00-17:00	현대건설, LS그룹	도서관 1층 로비
9/17(수), 10:00-17:00	삼성전자(DSI)	도서관 1층 로비
	휴비스	공대 2층 잠키패
9/18(목), 10:00-17:00	OCI	공대 2층 잠키패
9/19(금), 10:00-17:00	대우건설	공대 2층 잠키패
9/22(월), 10:00-17:00	효성그룹, NHN엔터테인먼트	도서관 1층 로비
9/24-25(수, 목), 10:00-17:00	한국타이어	도서관 1층 로비

KHU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Tel . 031-201-3061  
Homepage . <http://career.khu.ac.kr>  
E-mail . [career@khu.ac.kr](mailto:career@khu.ac.kr)

KHU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Tel . 031-201-3061  
Homepage . <http://career.khu.ac.kr>  
E-mail . [career@khu.ac.kr](mailto:career@khu.ac.kr)

보도

9월 중순 · 11월 중순, 2차례 나누어 등록금 3.7% 인상분 돌려준다

신 · 편입생 등록금납부 차액 환불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2014학년도 학부 등록금액 확정에 따라, 2014학년도 1학기 신 · 편입생의 등록금 납부 차액(3.7% 가고지인상분)에 대한 환불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2014학년도 1학기 신 · 편입생 중 장학금 미수혜자와 학자금 미대출자에 대한 환불은 9월 중순에 예정돼있다. 등록금 납부 차액은 종합정보시스템(중정시)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환불된다.

다만 2014학년도 1학기 신 · 편입생 중 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환불은 11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등록금 납부 차액은 중정시에 등록된 본인 계좌로 환불되지만, 장학금 수혜 금액과 학자금 대출 여부 등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다르다.

1학기 교내장학금 전액수혜자는 교내 장학 취소, 즉 총 장학 수혜 액수에서 등록금 인상분 납부 차액이 인하되므로 학생에 직접 지급되는 금액은 없다. 부분장학생에 대한 환급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먼저 정액장학생, 즉 등록금 액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수혜 받은 경우 학자금 미대출자는 본인 계좌 환불되며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 상환처리 된다.

반면 비율장학생, 즉 등록금 액수의 일정 비율에 대한 금액을 수혜 받은 경우 해당 비율만큼 장학을 인하고, 남은 부분은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는 대출 상환처리

〈장학 · 대출 여부에 따른 환급 시기 및 방식〉					
		환급 시기	환급 방식		
교내 장학금 미수혜자, 학자금 미대출자		9월 중순	○		
교내장학 전액수혜자				○	
부분 장학수혜자	정액장학생 중 학자금 미대출자		○		
	정액장학생 중 학자금 대출자				○
	비율장학생 중 학자금 미대출자	11월 중순	●	○	
	비율장학생 중 학자금 대출자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농어촌용자 포함)					○
교외 및 국가장학금 전액 수혜자				○	

된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농어촌용자 포함)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된다. 교외 및 국가장학금 전액수혜자는 외부 기관(장학재단 등)으로 직접 상환되므로 교내장학 전액수혜자와 마찬가지로 학생에 직접 지급되는 금액은 없다.

발생한 이자, 교육비와 연구학생경비로 사용예정

2011학년도에도 신 · 편입생을 대상으로 3%인상 가고지서를 발행했으나 그 해 3월 동결 결정이 나, 2학기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분을

환급한 바 있다. 이와 달리 계좌로 환급하게 된 이유는 수혜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유무, 휴학 등으로 인해 고지서 차감방식이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2014학년도 신 · 편입생의 3.7%가고지 인상분에 대한 반환이 길어지면서,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교육비와 연구학생경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획예산팀 측은 “우리학교가 지난 몇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이월 적립금을 사용하는 구조가 됐다”며 “다른 학교처럼 각종 수익을 적립하는 구조라면 등록금 납부 차액으로 발생한 이자를 적립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만큼, 올해 기타교육비나 연구학생경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칠성, 자판기 입점업체로 선정 “가격 비슷하거나 저렴할 것”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국제】지난달 11일부터 교내 자판기 영입이 재개됐다. 총무팀은 입찰을 통해 롯데칠성을 새로운 자판기 입점업체로 선정했다.

지난 6월 기존 위탁업체가 경영악화로 운영권을 포기하면서, 기숙사 내 자판기를 제외한 모든 자판기가 영업을 중단한

지 2개월만이다.

특히 1학기 기말고사 기간과 맞물려, 자판기를 이용했던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입점과정에서 가장 ‘중점’에 둔 것은 운영안정성이었다. 총무팀 측은 “자본금이 탄탄한 음료회사를 입점업체로 선정해, 갑작스런 운영중단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썼

다”며 “기존의 입점업체는 음료수 대리 · 공급업체였던 반면, 음료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만큼 운영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운영안정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음료선택과 가격 등도 고려했다. 이를 위해 입점업체는 롯데칠성이지만, 음료는 롯데칠성과 펄스 2개 회사 모두 취급하도록 조치했다. 총무팀 한상혁 팀장은 “가격은 지난번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저렴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

자판기 개수는 기존과 동일한 97개이며, 체육대학과 외부에 있는 일부 자판기를 제외하면 위치 역시 동일하다.

통일부터 협동조합까지, 다양한 배움학점제

2015학년도 배움학점제 강좌 확정

백승철 기자 scho1357@khunews.ac.kr

【서울】배움학점제 운영위원회가 ‘2015학년도 배움학점제 신규 개설강좌’ 확정했다. 배움학점제 운영위원회는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생위원회(대학생위원회)에서 새롭게 제안한 2강좌와 교수추천 5강좌 중,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2강좌 총 4강좌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규강좌 개설에 따라, 기존 10개 강좌 중 ‘비폭력 대화’, ‘신입생을 위한 대학생활가이드’, ‘페미니즘 시각으로 본 한국사회의 젠더이슈’, ‘통기타연주’는 폐강된다.

신설 4개 강좌 중 대학생위원회 추천 강좌는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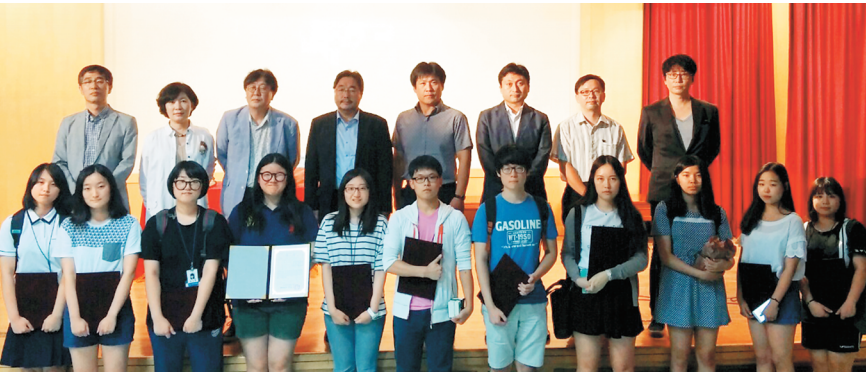
‘다큐로 만나는 세상’이다. 대학생위원회는 ‘최근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와 ‘다큐멘터리를 통한 나에 대한 고민 필요성’을 각각의 개설이유로 밝혔다.

교수추천 강좌의 경우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학생위원 총 87명이 참여해 가장 지지가 높았던 ‘놀이하는 인간: 대안문화기획학교’, ‘다른 경제, 다른 기업 : 협동조합’을 개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학생위원회 장현호(자율전공학부 2010) 위원장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학생들에게 유익한 강좌들을 개설하고 운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움학점제 강의는 지난 2009학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직접 만들자는’ 취지에 따라 학생평가나 선호도를 기준으로 강의를 신설 · 폐강해왔다.

〈2015년 배움학점제 강의개설 계획〉		
	강의제목(안)	개설 이유
기존강좌	자본주의 독버로 알기	강의평가 최우수강사(4학기 94점)
	노동인권 감수성 TOKTOLK!	강의평가 최우수강사(4학기 95점)
	즐거운 연애, 행복한 결혼	2014년 1학기 신규
	재미있는 철학콘서트	2014년 1학기 신규
	도시농부학교	배움학점제 기본 강좌
	인권, 꿈과 현실 사이에서	배움학점제 기본 강좌
신규강좌 (대학생위원회 추천)	우리 통일 어떻게 할까요?	최근 통일 이슈 부각 및 국내, 국제 정세 밀접 이해
	다큐로 만나는 세상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 세상을 만나다
신규강좌 (교수 추천)	놀이하는 인간 : 대안문화기획학교	대학생 위원 설문조사 1순위 강좌
	다른 경제, 다른 기업 : 협동조합	대학생 위원 설문조사 2순위 강좌



제50회 전국 고교문예백일장, ‘지도’ 너머의 세상보다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국어국문학과가 주최한 ‘제50회 전국 고교문예백일장’ 본심결과, 소설부문 임정은(안양예술고 3학년) 양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백일장에는 시 277명, 소설 323명의 예비 문인들이 응모했고 예심을 거쳐 시 50명, 소설 50명을 각각 선

발해 지난 22일 본심 백일장을 치렀다.

본심의 시제는 ‘지도’였으며, 예심과 본심의 작품을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가렸다. 다소 난해한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상한 작품들은 지도가 글 전체를 관통해 일관성을 확보했으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순한 의미 이상으로 풀어썼다는 평가가 나왔다.

2014학년도 2학기  
교수자 대상 강의컨설팅 안내

강의컨설팅은 강의촬영 및 수업컨설팅을 통하여 본인 강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국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수	강의컨설팅 신청	진행	결과제공
1요청	학내 설문조사 (학급차별 수업요구사항 및 만족도조사)	학내 설문조사 및 분석	학내 설문조사 결과
2요청	학생 설문조사 + 강의촬영 + 교수자환신(자기평가)	교수자환신 및 강의촬영	강의촬영 CD 제공
3요청	학생 설문조사 + 강의촬영 + 교수자환신 + 전문가 컨설팅	수업컨설팅 및 전문가 컨설팅	컨설팅 보고서
CTL	신청서 접수 및 일정조율	신청서 접수 및 일정조율	신청서 접수 및 일정조율

1) 신청방법 :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online@khu.ac.kr)로 신청

2) 문 의 : 교수학습지원센터(국제) 031-201-3195~7

도현미 연구원(E-mail: online@khu.ac.kr)

국제 캠퍼스 교수학습지원센터

2014학년도 2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 프로그램 모집 안내

2014학년도 2학기 학습법 프로그램 모집 안내입니다. 세부 내용은 개별 홍보 메일이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내 용	모집 일시	신청방법
학습커뮤니티 - 스터디그룹	전공과목에 대한 협동 학습으로 학습효과를 높이고 전공 간 학습네트워크를 통하여 융합교육 제공, 유연한 사고력 향상과 학업 성취도 증진에 도움을 주는 학습 공동체	9월 5일(금) 10시 ~ 15시	learning@khu.ac.kr
학습커뮤니티 - Open Class	전공 관련 학습능력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일정 자격을 갖춘 Supporter와 도움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을 팀원으로 하는 학습 공동체	9월 1일(월) 9시 ~ 9월 12일(금) 17시	신청서 작성 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신청
Learning Fellow	우수한 역량을 갖춘 학생이 단과대학별 Fellow가 되어 동료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도와주고 학습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9월 1일(월) 9시 ~ 9월 12일(금) 17시	신청서 작성 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신청

※ 문의 : 학습법 담당 김희정 선임연구원 Tel. (031) 201-3195~7  
교수학습지원센터 국제캠퍼스 학생회관 111호

국제 캠퍼스 교수학습지원센터

국내 최고 취업전문가 및 졸업문과와 함께하는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지원사업  
Advancement for College

취업준비! MOSAIK 제기 멘토모집

- 150명의 경희동문선배멘토가 원하는 직업 및 직군 밀착 지원!
-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하여 취업 및 진로에 대한 1:1 개별컨설팅 심층 진행!
- 자기 이해를 통해 직업선택 및 진로에 대한 명확한 설정 지원!

자기소개서? 면접? 어떻게 준비하지? 나에게 맞는 직업이 뭐까? 취업준비가 너무 막막해... 전공선택을 잘못했나? 스펙이 너무 막해...어디로 괜찮을까?

MOSAIK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모자이크 수료학생 후기

"5대 스펙에 이젠 8대 스펙이란 말까지 나오는 취업전쟁에서 모자이크는 자기를 바로 알게하고 직무에 대해 깊이 탐구하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6기 산업경영공학과 07 박성수, 현대모비스 입사)

"취업의 첫 걸음은 정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하여 모자이크를 통해 자신의 발전을 이끌어 보세요!" (5기 기계공학과 08 장길영, 현대모비스 입사)

"취업준비를 위한 탄탄대로! 개별컨설팅에서부터 취업준비강의, 실전모의면접, 동문선배 멘토링까지 ...까마득한 취업준비가 정말 쉬워졌어요." (4기 한국어학과 11 천율겸)

대상 2학년부터 4학년 까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 9월17일(수)~11월22일(토) 매주 수 (18:30~21:30)/ 토 (10:00~13:00)

신청방법 신청기간 : 9월1일(월) ~ 9월11일(목) 12:00까지

1. 종합정보시스템(https://khu.ac.kr)에서 신청 (\*인터넷신청→연수신청)

2. 참가신청서작성 후 (career@khu.ac.kr)로 이메일 첨부

문의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 학생회관1층/ 031-201-3061

국제 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Global Campus Office of Career Services

칼럼



정지호  
사학과 교수

이 연재는 동아시아(한중일) 내셔널리즘의 형성 기원을 비교사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의 탈민족주의화가 가속화돼가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내셔널리즘의 형성 기원을 비교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동아시아와 내셔널리즘 ④

연재순서

- 1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일본의 경우
- 2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중국의 경우
- 3회 : 내셔널리즘의 형성 - 한국의 경우
- 4회 : 미래지향적 역사 논의를 위해

“

오늘날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사분쟁과 영토분쟁은 동아시아의 평화적 질서를 위협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 한반도 분단 극복, 동아시아 평화의 단초

1895년에 막을 내린 청일전쟁은 중화세계질서의 종언을 고함과 동시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제국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자국이 지리적으로는 아시아에 위치하지만, 문명적으로는 아시아가 아니라는 이율배반적 논리 속에서 아시아는 일본에 의해서만 근대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국주의적 맥락 속에서 일본은 ‘동양’, ‘동아’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창안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동양’이란 중국의 동쪽인 일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중국에서는 일본 상품을 동양화(東洋貨)라고 했으며, 일본 군인을 증오해서 동양귀(東洋鬼)라고 불렀다. 본래 일본이란 국호 역시, 중국을 기준으로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양’과 같은 의미였던 것이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중화세계질서를 해체하고 자신을 가리키던 동양을 서양에 대항하는 동양으로 확대해석했다. 이에 따라 일본=동양이라는 담론을 창출함과 함께 중심이라는 의미를 지닌 중국을 지나(支那)라고 해서, 조선과 만주를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서역을 포괄하는 동양이라는 넓은 시공간 속에 위치하는 일부 국가로 상대화시켰다.

동양, 동아의 탄생

‘동양’은 곧 아시아의 의미로 변환됐다.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은 《동양의 이상》이란 저서를 통해 ‘아시아는 하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아시아는 유럽과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세계로서 일본, 중국, 인도를 포함하는 세계였다. 오카쿠라는 서구문명의 침입에 대해 아시아의 문명을 옹호하고 회복할 것을 강조하는 이른바 아시아주의를 제창했지만, 그의 아시아주의 이면에는 여전히 일본을 아시아 문명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탈아입구론(脫亞入歐論)’과는 구별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본 만이 서구와 대항해서 아시아를 지켜낼 수 있다는 일본 ‘오리엔탈리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대동아공영권’으로 확대됐다. 1943년에 일본·중화민국(왕징웨이 정권)·만주국·태국·필리핀·버마 등 6개국의 수뇌가 도쿄에 모인 가운데 ‘대동아회의’를 개최하고 ‘대동아공동선언’을 채택·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각 민족의 독립을 존중하고 상호협력력을 호소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공동공영을 주창했지만, 실상은 일본의 패전이 농후해져가는 상황에서 점령지 나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회된 것에 불과했다.

‘대동아공영권’은 ‘중화세계질서’와 비교되기도 한다. 양자는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중화세계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각국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느슨하게 결합돼 있었던 것에 반해 ‘대동아공영권’은 아시아 각국의 주권을 제한하고 오로지 일본에 의한 황국을 건설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래의 그림은 프랑스 화가 비고가 청일전쟁 이후 아시아의 맹주가 된 일본이 전 아시아인을 거느리고 서구제국을 향해 진군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시기는 다르지만, 여기에서 나폴레옹으로 묘사된 일본의 모습에서 ‘대동아공영권’을 구축하고자 한 일본의 모습을 연상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동아시아의 해체, 그리고 귀환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패배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됐다. 일본 측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을 대표로 한 동양문명이 서구 문명에 패한 것이다. 일본의 패배는 단지 일본의 패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부채는 동아시아가 온전히 짊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전후 미국과 소련의 주도 하에 진행된 이른바 냉전체제 하에서 동아시아는 지역적 정체성을 상실한 채, 오직 이념이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괴물체에 의해 지배됐다. 그 가운데 한반도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서 이데올로기 전장의 최전선이 됐다.

동아시아가 지역적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는 것은 냉전이라는 이데올로기의 족쇄가 풀리면서이다. 탈냉전과 함께 동아시아가 귀환하게 된 것이다. 당시 한국의 386세대는 미국을 ‘우리’가 아니라 ‘그들’, 중국을 ‘그들’이 아니라 ‘우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을 표출했는데, 이로써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월 15일 취임사에서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안을 이어주는 가교이다. 유럽연합처럼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시아에 구축되는 것이 내 희망이다.”라고 언급했다. 한반도가 더 이상 동아시아 분쟁의 진원지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사분쟁과 영토분쟁은 동아시아의 평화적 질서를 위협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사분쟁, 영토분쟁의 원인을 유럽의 독일과 비교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일본의 민족성 탓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전후 유럽의 냉전체제가 전범국인 독일에겐 철저하게 반성을 강요한 것과 달리 일본의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던 것이다. 전후 미국의 단독점령 체제 하에서 일본은 일부 A급 전범에 대한 처형을 제외하고는 천황을 비롯한 지배층이 면죄부를 받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냉전체제 하에서 일본의 전쟁 및 역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움직임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이 전범국인 독일의 전후문제에 참여했던 것에 비해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전후문제에 최대 피해국인 한국, 그리고 중국은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다. 냉전체제는 소련의 붕괴로 무너졌지만,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졌으며 여전히 전쟁의 상흔을 헤소하지 못하고 있다. 냉전이 동아시아에 미친 부채는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역사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간단히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토분쟁을 뛰어넘어 동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분단극복 등 냉전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가교로써 한반도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때 동아시아의 안녕과 질서는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교양리포트 11  
정보디자인 세미나

## 정보를 디자인하다



박정원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이제는 단순한 정보의 장악을 넘어서 정보를 입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소통시킬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획득하는 시대에 와 있다. 필자의 휴머니티스칼리지 강좌 ‘정보디자인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획됐다.

세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한 《미래쇼크》(1970), 그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한 《제3물결》(1980)을 저술한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권력이동 power shift》(1990)에서 세계 변화의 통제권을 누가 획득할 것인가라는 향후 권력이동의 역동적 구조를 예단했다. 그는 21세기를 움직이는 권력으로 ‘폭력’, ‘부’, ‘정보’ 중 ‘정보’를 주목했으며, 폭력은 응징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저품질 권력이고, 부는 물리력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있어 중품질의 권력이며, ‘정보’만이 벌을 줄 수 있고, 보상과 설득, 변형시킬 수 있어 물리력이나 부의 낭비를 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권력이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그 정보를 획득하는 사람이 권력을 선점할 수 있으며, 그 ‘정보’는 ‘0과 1’의 조합으로 생성되는 디지털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정보의 장악이야말로 인류의 모든 조직체에서 전개될 내일의 전세계적 권력투쟁에서 핵심문제라고 봤다.

앨빈 토플러가 《권력이동》에서 예언한 사실들은 20여년 후에 정확히 적중했으며, 이제는 단순한 정보의 장악을 넘어서 정보를 입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소통시킬 수 있는 사람이 권력을 획득하는 시대에 와 있다. 만약 2014년 현 시점에서 향후 권력의 이동을 예단한다면 감성적으로 정보를 디자인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향



정보의 생산과 축적을 넘어 정보를 입체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

후 권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휴머니티스칼리지 강좌 ‘정보디자인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보의 생산과 축적을 넘어 정보를 입체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감성적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시대적 필요성에서 기획됐다.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정보 즉 시간, 공간, 도상, 관념, 영상, 텍스트, 이미지 등을 입체화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정보전달과 소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반 마인드와 전략을 배양하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다.

정보디자인을 통해 우리들의 생활 속에

포진해 있는 다양한 정보를 유형화하고 시각화할 수 있으며, 정보소통의 극대화를 통해 정보의 가치를 고양시킴으로써 학습자의 정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강의에서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 프리미어와 같은 조각이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조작능력 초보자도 누구나 수월하게 정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정보 Timeline Maker(Timeline Eons)와 ConceptDraw, 공간정보 Google Earth(Maps)와 GE Graph, 멀티자막정보 SMISyncW, 이미지 정보 Wondershare FlashGallery Factory, 영상정보 Corel VideoStudio와 Video

Watermark, 도상정보 Rich Chart Builder와 Diagram Studio, 맵정보 Mindjet MindManager(iThoughts HD), 지도정보 Region Map Generator 등을 채택한다. 이는 소잡는 데는 소잡는 칼을 쓰고 답잡는 데는 답잡는 칼을 사용한다는 원칙하에서 최적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정보는 단순히 ‘0과 1’의 조합으로 생성된 평면적인 디지털 정보가 아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우리의 감성체계에 부합하는 소통가능한 정보로 재탄생돼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외국계 기업의 20~30대 대졸 직장인 8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은 ‘컴퓨터 활용능력’(77.5%)을 업무에 가장 도움이 되는 스펙으로 선정했다(연합뉴스, 2014. 5. 20). ‘컴퓨터활용능력’은 단순한 조작능력이지만 직장인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있으며 가장 많이 배양해야 할 능력이며, 업무에 필요한 중요한 능력임을 알 수 있다.

‘정보디자인 세미나’는 항상 옆에 있지만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정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최상의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을 발굴, 활용해 각 분야 정보의 디자인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의 소통효율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강 날이 되어 험덥고개를 힘들게 오르고 나면 분홍색의 꽃이 사람들을 맞이한다.

# 선비들의 관상수, 배롱나무

## 우리학교 꽃 이야기 (14)

안범철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강 날이 되어 험덥고개를 힘들게 오르고 나면 분홍색의 꽃이 사람들을 맞이한다. 언제나 오르는 길이어서 쉽게 지나치기도 하지만 숨 한번 쉬고 하늘을 보면 예쁜 꽃이 나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나뭇가지는 옷을 훌쩍 벗은 듯이 매끈한 갈색을 드러내고 있고, 꽃은 분홍색으로 화사한 듯 하면서도 수줍은 듯이 피어있다. 이 나무의 이름은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L.)이다. 어른들은 이 나무가 꽃이 피면 100일간 지속된다고 해서 백일홍이라고도 했다. ‘백일홍’이라고 했던 이름이 ‘배기롱나무’로 바뀌어 불리고 또다시 ‘배롱나무’가 됐다고 한다. 충청도에서는 ‘간지럼나무’라고도 하는데, 나무껍질을 긁으면 나뭇잎이 움직이며 간지럼을 타는 것 같다며 지어진 별명이다. 제주도에서도 ‘저금 타는 남’이라고 하는데 ‘저금’과 ‘남’이 제주도 방언으로 ‘간지럼’과 ‘나무’이다.

학명 *Lagerstroemia indica* L.

의 *Lagerstroemia*는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Carolus Linnaeus*가 그의 친구인 *Magnus von Lagerström*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일본에서는 나무줄기가 미끄러워 원숭이미끄럼나무(ざるスベリ猿滑)로 불린다고 한다. 중국어로는 ‘紫薇’; *zi wei*’라고 한다. 자주색 꽃이 피는 나무라는 뜻이다. 배롱나무가 많은 중서성을 자미성으로 이름을 바뀐 불이기도 했고, ‘紫’는 천자를 나타내는 말이라 하여 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배롱나무를 좋아했다. 조선의 충신으로 유명한 사육신 성삼문(成三問, 1418~1456)은 배롱나무를 보며 한시를 지었다.

昨夕一花衰(작석일화쇠)  
어제 저녁 꽃 한 송이 지고  
今朝一花開(금조일화개)  
오늘 아침 꽃 한 송이 피어  
相看一百日(상간일백일)  
서로 일 백일을 바라보니  
對爾好銜杯(대이호함배)  
내 네가 좋아 한 잔 하리라

이 한시에서도 잘 나타나있듯이 배롱나무는 꽃 한 송이가 백일을 피우지는 않는다. 한 송이의 꽃은 1~2

주 정도 피고 꽃이 떨어지면, 다른 꽃송이가 또 피어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해간다. 성삼문은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 시에 담았다고 한다. 배롱나무는 사대부집안에 많이 심었다. 오죽헌에 있는 배롱나무는 수령이 600년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며, 소나무, 매화와 함께 오죽헌의 수호목으로 보호 받고 있다. 배롱나무가 백일동안이나 변함없이 꽃을 피우는 열정과 강인한 생명력을 배우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배롱나무는 수술이 35~50개로 일일이 세어보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러나 그 수술이 모두 수분을 할 수 있는 꽃가루를 만들지는 않는다. 꽃에 있는 수술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꽃잎과 가까이 있는 6개의 수술이 다른 수술에 비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6개의 수술은 푸르스름하며 비교적 큰 꽃가루를 만드는데, 이 꽃가루들은 다른 꽃의 암술로 이동해 수정을 할 수 있다. 가운데 35~40개 정도의 다발로 있는 수술은 노란색의 꽃가루를 만들어 내는데 이 꽃가루는 수분이 되지 않는다.

그럼 왜 가운데에 있는 짧은 수술은 중요하지도 않는 꽃가루를 만들어 낼까? 해답은 벌에게 있다. 배롱

나무는 꽃을 피우고 꽃가루를 이동할 때 벌의 도움을 받는데 벌은 꽃가루를 이동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벌의 먹이로 사용한다. 이렇게 벌이 먹기 위한 꽃가루는 벌이 좋아하는 노란색으로 양분을 적게 사용해 만든다. 그리고 배롱나무가 진짜 수분(pollination)을 해야 하는 꽃가루는 푸르스름하여 벌이 선호하지 않도록 하고, 양분을 많이 사용해 꽃가루를 만든다. 배롱나무는 벌에게 줄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만드는 것이다.

그럼 수많은 수술 중에 왜 6개만 생식능력이 있을까? 배롱나무는 꽃잎도 6장, 꽃받침도 6장이고, 암술은 1개지만, 과실의 수(심피)도 6개의 방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생식 가능한 수술 또한 6개이다. 6이란 수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배롱나무가 꽃을 백일동안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분과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효율적인 체내 에너지 사용과 꽃가루를 이동하기 위해 꽃가루도 구분해서 만들어 내는 배롱나무는 과거 자신을 수양하던 선비들이 좋아할 만한 현명한 나무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 필자 사정으로 중단됐던 ‘우리학교 꽃 이야기’를 재개합니다.

## ▶1면에서 이어짐

울프는 셰익스피어에게 재능 있는 여동생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질문하며, 아마도 겨울밤 목숨을 끊어 묻혔을 것이라고 답한다. 여성이 교육받을 수 없었던 16세기에 그녀의 재능은 훈련받지 못하고, 사회는 그녀를 성격을 가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아 고독 속에서 자기살해를 택했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한 사람의 위대한 여성 작가는 자신을 지지해 줄 사회적 제도 속에서 탄생됨을 암시한다. 만약 이렇듯 여성의 창조성을 억누르는 제약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성문학비평은 여성열등성의 신화를 완성하고 하녀로 전락할 것이다.

화자는 마치 공간 플래시 몹이라도 하는 듯 대학, 교회, 대영박물관 등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삼위일체라 할 장소들을 침범해 그것의 허위를 들춰내고, 카페, 거리, 광장 등

으로 이동하며 삶과 인생의 리얼리티와 접촉하려고 한다. 오븐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어 굶지 않기 위해서라면 광녀의 열정이라도 빌어 가로지르고 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프는 정전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전복적 글쓰기를 실험한다. 책을 펼친 독자는 자신이 진리에 다가갈 가능성을 회의하는 화자를 만난다. 일반적으로 화자/저자는 스스로의 말과 글을 진리와 동일시하는 전지전능한 주체이기 때문이기에 회의하는 화자의 존재는 당혹스럽다. 그러나 ‘멈칫거림’은 자신없음의 증거가 아닌 저자의 권위에 균열을 내기 위한 전략이다. 이른바 ‘위대한’ 책들이 남성의 우월감을 위해 여성을 열등하게 ‘창조’해내 정신적으로 살해해왔기 때문이다.

울프는 여성에게 오백파운드의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위대한 예술가들이 중산계급이었다는 점은 성평등을 실현하



울프는 자기 존재의 취약성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탈주하라고 말한다.

“여성의 창조성을 억누르는 제약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여성문학비평은 여성열등성의 신화를 완성하고 남성의 권위를 보증해주는 하녀로 전락할 것이다.”

기 위해 물질적 토대가 갖춰져야 함을 증거한다. 또한 ‘개인성’의 가치를 강조한다. 타인의 방해 없이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방은 자기에게 진실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날 1 대 99의 사회에서 고립이 두려워 모방을 일삼고 그 대가로 공허에 시달리는 99%들을 위한 제안으로 울프의 해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 참여마당

유태훈  
전자전파공학 2014



## ‘아이스 버킷 챌린지’ 유쾌한 사회운동의 단초

최근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화제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루게릭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캠페인으로, 지난 7월 미국에서 시작해 현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의 규칙은 간단하다. 먼저 참가자는 이 캠페인에 참여 할 세 사람을 지목하고, 지목받은 사람은 24시간 이내에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루게릭병 관련 협회에 100달러(한화 10만 원)를 기부해야 한다. 얼음물을 뒤집어쓰거나 기부를 한사람은 이후 다시 캠페인에 참여할 세 사람을 지목한다. 이런 반복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빌 게이츠, 리오넬 메시, 유재석, 시아준수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참여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의 인기가 뜨거워질수록, 부정적인 의견도 늘어나고 있다. 인기 여가수의 선정적인 참여 동영상이나, 일부 제품의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등 더 이상 원래의 목적인 ‘루게릭병 환자를 생각하자’는 뒤로 밀려났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단순히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것이, 루게릭환자들의 고통을 대신 느낄 수 있는지, 모여드는 성금이 과연 제대로 환자들에게 쓰이는지 등의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를 ‘슬랙티비즘’, 즉 노력이나 부담을 지지 않고 하는 사회운동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또한 한 여름 밤의 꿈처럼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촘촘히 연결된 SNS라는 그물을 활용한 사회운동으로 확대돼야 한다

하지만 ‘아이스 버킷 챌린지’라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루게릭병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루게릭병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됐을 뿐 아니라, 이를 SNS를 통해 지켜보고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다.

비단 루게릭병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진국의 변기물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쓰는 물보다 깨끗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배우 맷 데이먼은 변기물을 뒤집어쓰는가 하면, 팔레스타인의 언론인 아이만 알알물은 가자지구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물 대신 자갈과 흙을 뒤집어썼다. 이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오늘날 세계 곳곳의 문제를 알리는 데 역할을 했다.

이제 곧 어느 다른 캠페인처럼 ‘아이스 버킷 챌린지’ 또한 한 여름 밤의 꿈처럼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들이 흘러가는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아이스 버킷 챌린지’와 같은 캠페인은 계속돼야 한다. 촘촘히 연결된 SNS라는 그물을 활용한 사회운동들이 확대돼야 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집중된 우리의 관심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지속돼야 한다.

이런 관심이 지속될 수 있다면, 작은 문제는 차치해두고 ‘경건’과 ‘희생’을 요하는 사회운동을 넘어 ‘유쾌한’ 또는 ‘순쉬운’ 사회운동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다.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물을 뒤집어쓰며 웃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라! 그 웃음이 뻗어나갈 수 있는 통로를 이미 우리는 갖고 있다.

## 한국어 ·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

## 외국어강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 접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2014. 8. 18(월) ~ 9. 2(화)
  - 추가 접수기간 : 9. 3(수) ~ 9. 19(금)
- Level Test**
- 영어회화 : 9. 2(화), 3(수) 17:30
  - 일본어 · 중국어 · 스페인어회화 : 9. 3(수) 17:15
- 강의기간**
- 정규 외국어강좌(6주) : 9. 10(수) ~ 10. 17(금) / 9. 8(월)~9(화), 10. 3(금), 9(목) 휴강, 9. 12(금), 26(금), 10. 10(금) 보강

개설강좌					
구분	강좌명	단계	강의시간	수강료 (전형료 포함)	
정규 외국어 강좌	영 어 회 화	Level 1 ~ 6		150,000원	
	일 본 어 회화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	오전 7:45 ~ 8:45 (월~목)		
	중 국 어 회화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오후 6:30 ~ 7:50 (월~수·목)		
	프랑스어 회화	오후	초급1	오후 6:00 ~ 7:20 (월·수·목)	110,000원
	스페인어 회화	오후	초급2	오후 7:30 ~ 8:50 (월·수·목)	
			초급	오후 6:00 ~ 7:20 (화·목)	
개강 9.10(수)		중급	오후 7:30 ~ 8:50 (화·목)	90,000원	
	Book Club		오후 6:30 ~ 8:00 (화)		
	Academic Writing Workshop		오후 6:00 ~ 7:50 (화·금)		
		News Talk		오후 4:30 ~ 5:50 (화·금)	110,000원
	JLPT 문법대책	N3	오후 4:30 ~ 5:50 (화·금)		
		N2	오후 6:30 ~ 7:50 (화·금)		
HSK 대비반	4급	오후 4:30 ~ 5:50 (화·금)			
	3급	오후 6:30 ~ 7:50 (화·금)			
주말 외국어 강좌	DELFL 대비반	B1	오후 6:00 ~ 7:20 (화·금)	110,000원	
		B2	오후 7:30 ~ 8:50 (화·금)		
	프랑스어 회화	기초	오전 10:00 ~ 오후 1:00 (토)		150,000원
	러시아어 회화				
					베트남어 회화
태 국 어 회화					
					한 디 어 회화
아랍어회화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Tel. 02) 961-0081~2 http://www.iie.ac.kr

스포츠 / 문화



❶ 디자인 금상을 수상한 ‘아이언맨’ 자동차 ❷ 시동고장을 수리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❸ 4년만의 수상으로 기뻐하는 KHARS 회원들

사자군단 2연승  
4강 PO 진출

VS 건국대 6강 플레이 오프

조영욱 기자 ywcho2@gmail.com

농구부가 ‘2014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6강 플레이오프에서 건국대에 게 2연승을 거두며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지난 25일 우리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첫 번째 경기에서는 67-65로 신승을 거두고, 이어 26일 건국대 충주체육관에서 열린 2차전에서 67-52로 승리를 따냈다.

건국대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며 손쉽게 4강 티켓을 획득했지만 경기력 면에서는 부족한 모습도 보였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세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1차전은 건국대의 끈질긴 수비에 고전했다. 3쿼터 종료 시점까지 47-47로 팽팽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4쿼터를 시작하면서 김현국 감독은 김철욱(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를 수비력이 좋은 최승욱(스포츠지도학 2013) 선수로 교체하며 건국대의 속공을 효과적으로 막아냈다. 반면에 건국대 유영환(체육교육학 2012) 선수는 5반칙으로 퇴장당하며 승부의 추가 기울었다. 경기 종료 2.6초를 남겨놓고 배수용(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2점차 진담승을 거뒀다.

다음 날 이어진 2차전에서는 화끈한 공격으로 손쉽게 승리를 따냈다. 김철욱 선수가 골밑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한희원(스포츠지도학 2012) · 최창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가 패조의 골 감각을 자랑하며 건국대를 공략했다. 1차전과 달리 지역방어와 대인방어를 적절히 활용해 끈끈한 수비력을 보여줬다. 경기 초반 잡은 승기를 그대로 이어간 농구부는 67-52로 승리하며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다.

농구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월 2일까지 3판 2선승제 4강 플레이오프를 통해 연세대와 결승전 티켓을 두고 격돌한다. 지난 6월 열린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연세대에 86-89로 아쉽게 패배해 4강 플레이오프 직행티켓을 놓쳤지만 지난 7월 ‘아시아-퍼시픽 대학농구챌린지’에서는 80-73으로 승리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준바 있다. 6강 플레이오프 2연승의 기세를 모아 사자군단의 강한 면모를 4강에서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울퉁불퉁 오프로드 넘어 금빛 온로드까지

KHARS 이영진(기계공학 2013)  
회장 인터뷰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2014 대학자동차 자작대회’에서 ‘KHARS(KyungHee Automobile Research Society)’는 온로드와 오프로드에 두 팀이 각각 출전해, 온로드 분야 ‘KHARS-f팀’은 디자인 부문에서 금상, 오프로드 분야 ‘KHARS-b팀’은 종합 장려상을 수상했다.

KHARS 공작실로 지난달 26일 향하는 길. KHARS에 대한 상상 속 모습은 ‘자동차’에 빠진 ‘공학도’ 모임이었다. 엔진 오일 묻은 장갑을 낀, 과한 작업복을 입은 드라마 속 그런 모습들을 꿈꾸며 공작실 앞에 섰다. 문을 열어준 이영진(기계공학 2013) 회장은 예상과 멀었다. 이 회장은 “가입하는 학생 모두 ‘차가 좋아서’ KHARS를 찾는 것은 아니다. 선배와 교류도 하고, 자동차 관련 세미나도 수강하면서 차에 대한 관심까지 늘어나는 이도 적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물론 나는 처음부터 좋았다”고 덧붙혔다.

이런 관심과 열정의 성장은 새로운 시도로 이어졌다. 특히 KHARS가 성과를 거둔 이번 ‘2014 대학자동차 자작대회’는 기존의 오프로드 분야에만 참여했던 것을 넘어 온로드 분야에 도전한 것이 좋은 결과로 돌아왔다.

오프로드와 온로드 분야는, ‘어떤 환경

에서 달리는 자동차’ 인가로 나뉜다. 예를 들어 F1트랙과 같이 잘 포장된 도로 위를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온로드’ 분야다. 반대로 뜨거운 사막이나, 울퉁불퉁한 산 등을 주행하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것은 ‘오프로드’ 분야다. 자동차가 주행하는 환경에 따라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부품이나 설계구조 역시 차이가 크다.

대회 직전 시동고장 ‘위기’  
“발표 포기 생각도…”

그렇기에 오프로드 분야에 참가해온 KHARS에게 온로드 분야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따라서 오프로드 분야 출전팀은 지난 대회에서 사용한 자동차를 바탕으로 ‘개선과 수정’의 작업을 진행했지만, 온로드 자동차는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다. 이 회장은 “온로드 분야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시도도 못했는데, 다른 학교 온로드 자동차를 보고 ‘우리로 할 수 있다’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백지상태로 부딪히보니 쉽지 않았다. 지난 1월부터

공부와 제작의 반복이었다”고 말했다.

온로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부품들의 사용한계가 ‘그램(g)’ 단위일 정도로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부터, 방향전환에 쓰이는 ‘조향부품’ 제작에 나선 팀원들은 논문 두 편을 참고해가며 6개월 만에 차량을 완성했다. 자동차가 완성된 후부터는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계속됐다. 상여모양부터 일반적인 F1차량까지 총 10가지 시안 중 결국 ‘아이언맨’을 컨셉으로 디자인을 결정했다.

KHARS 두 팀 모두 자동차를 완성해 ‘한 숨’ 돌렸을 때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대회 5일 전에 대회장소인 군산으로 이동한 KHARS는 최종 점검을 마쳤다. 하지만 대회 직전, 갑작스럽게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고 타는 냄새가 났다. 이 회장은 “당시 문제를 해결하느라 밤낮없이 일했다”고 말했다.

운도 따랐다. 돌발 상황을 해결하느라 디자인 발표를 준비할 여력이 없어 디자인 부문 출전을 포기하려고 했다. 그러다 대회 당일 자동차가 규정에 맞게 제작됐는지 확인하는 ‘검차’를 진행하기 전, 검차장비가 고장났다. 이 회장은 “검차 대기 시간이 길어졌기에 짧게나마 발표준비를 할 수 있었다. 준비는 미흡했지만 정훈(기계공학 2008) 군의 순발력과 재치 덕분에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력은 빛을 봤다. 처음 만들어보는 온로드 자동차라는 제작과정의 어려움, 오히려 평가에서는 ‘참신함’으로 비춰진 것이다. 특히 ‘아이언맨’을 컨셉으로 한

디자인은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의 이목도 집중시켰다. 오프로드 자동차 역시 긴 시간동안 개선을 거듭해온 만큼, 안정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회는 끝이 났고, 좋은 결과를 거머쥐었다. 제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동안 쌓은 노력 역시 ‘좋은 경험’이 됐다. 하지만 ‘금전적 어려움’은 걸림돌로 남아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팀당 150만 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40만 원뿐이었다. 결국 필요한 공구조차 갖추기 힘들어 개인당 50만 원을 거둬 제작에 보탰다”라고 말했다.

재원감축으로 어려웠지만  
‘연구분야’도 도전할 계획

다행스럽게도 오환섭(기계공학) 교수가 공작실을 찾아와 학생들을 도왔고, 기업체와 주선해 모터와 엔진도 지원받도록 했다. 이 회장은 “오 교수님께 감사하다.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거둬 ‘지원’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KHARS는 앞으로도 자작대회를 목표로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작 외에 연구분야도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은 “4년 만에 수상했다. 이제 제작뿐만 아니라, 자동차 연구분야에서도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KHARS 모두가 자동차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해나가는 꿈을 꾸다”고 말했다. 그들의 새로운 시도가, 이번 대회에서처럼 노력을 통해 값진 열매로 돌아오길 응원한다.

강라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가실의TV 속에도

엄마의마그네슘프라이팬에도

동생들의  
태양열온수기에도

할아버지의휠체어에도

큰형의자전거속에도

삼촌의  
플렉시블태블릿속에도

누나의첫차속에도

공부방의  
LED전구에도

누구에게나  
포스코가 있다

당신은 매일 생활 곳곳에서 수 많은 포스코를 만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강 경쟁력을 바탕으로 첨단 신소재, 그린 에너지 사업을 펼쳐가는 포스코.  
더 나은 내일로 당신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세계최초 자동차용 초고강도강 등 World First, World Best 제품 양산  
해외플랜트 등 고품질 에너지 강재 시장 선점  
2013년 WSD(World Steel Dynamics) 세계 철강기업 경쟁력 1위(4년연속)

첨단 신소재

세계최초 리튬 추출 기술 개발(2차전지 핵심원료로 전기자동차, 휴대용 등에 쓰임) 및 음극재 생산 / 국내최초 마그네슘 제련공장 및 고부가 소재(자동차 강판 등에 사용되는 망간) 생산 / 제철부산물 활용한 탄소소재사업

그린에너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석탄화력 및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 차세대 에너지 연료전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화 / 풍력(탈탄소화), 태양광(미국 네바다주, 신안 태양광 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